

'그리운 금강산' 등 국민애창가곡 함께 불러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결성 10년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기념 음악회 테너 윤병길·소프라노 김선희 출연 KBS광주방송국어린이합창단 공연도



지난달 열린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공연 모습.

우리가곡을 시민들과 함께 부르고 배워온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10년의 결실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연다.

이들은 '가곡의 향기 그대 가슴에 스미다'라는 주제로 오는 8일 오후 5시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113번째 공연을 갖는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지난 2008년 8월 우리가곡을 아끼고 사랑하는 7명이 결성해 만들었다. 매일 한 차례씩 모여 함께 가곡을 부르고, 새로운 노래도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동호회 성격으로 출발한 이 단체가 오래갈 수 있을까 주위의 걱정이 많았지만 회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나선 덕에 음악회를 찾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었다.

매달 열리는 음악회에는 40명에서 많게는 150명이 참여해 총 8000명이 함께 우리 가곡을 불렀다.

음악회에는 매년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 '얼굴'의 신귀복, '내맘의 강물'의 이수인, 한국작곡가회 회장을 맡고있는 정덕기 교수 등 유명 작곡가 20여 명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100명이 넘는 성악가가 무대에 올라 가곡의 아름다움을 선보였고 공연에서 함께 배우고 부른 노래는 2300곡이 넘는다.

시를 노랫말로 곡을 붙인 가곡이 많기에 시를 낭송하며 정취를 돋우기도 한다. 또 우리 가곡의 전통을 후대에 전



테너 윤병길



소프라노 김선희

하기 위해 매년 초·중·고등 남녀들의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 회원들은 10년 동안 병원이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꾸준히 위문 공연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박원자 부회장과 고광덕 운영위원이 진행을 맡은 이번 공연은 국민애창가곡들로 채워진다. 테너 윤병길이 '목련화'와 이수인 '내 맘의 강물'을 부르며 소프라노 김선희는 '강 건너 봄이 오듯'과 '그리운 금강산'으로 정취를 자아낸다.

또 KBS광주방송국어린이 합창단이 윤극영의 '반달' 등을, 광주챔버싱어즈합창단은 김동진의 노래 '가고파'를 무대에 올린다. 시낭송가 노경호·박복순씨 부부는 송수권의 시 '징검다리'를 낭송한다. 윤민재, 남신, 정갑주, 서예숙, 장흥식, 고광덕, 심옥호, 김광수, 김희숙, 박진영 등 회원들이 참여해 귀에 익은 서정가곡들을 선보인다. 출연진들은 함께 '님이 오시는지', '떠나가는 배',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며 음악회를 마무리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무엇이, 어떤 길을 마다하지 않았을까? 무엇이, 나를 그 길로 접어들게 했을까?

지난 1일, 대구학생문화센터 소극장에서 우리 연극 '한여름 밤의 꿈' 공연을 마치고 다시 광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차창에 스치는 지리산 자락에 너무나 아름답게 드리워진 산안개를 바라보며 그 안개 너머로 숨겨져 있었던 지난날들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88고속도로' 그 살인적인 도로를 타고 대구로 향했던 게 아마도 90년도 초 반이었던 것 같다. 그때 내 나이가 20대 말이었으니까 연극인의 길로 접어들기 겨우 4-5년쯤 되었을 거다.

뜨거운 진정성과 치열한 연극 흥을 담아 무대를 만나고 관객을 만나고 싶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

연극에 대한 담론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27-28년여 동안의 동행!

그것은 결국 자국이였다. 그대 저들은 저토록 치열하게 연극 흥을 불사르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주저하는가? 나는 왜 머물러 있는가, 나는 왜 핑계 속에 갇혀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은 몇 년 뒤 소극장을 열게 했고 지금까지 일 년에 평균 2-3차례의 상호 방문, 초청

동행의 길 위에서 묻다

있던 연극인생 초반의 열정, 그런데 내 주변은 점차 그 열정을 다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갈수록 시달리게 되었고 긴 방황의 시간들을 안겨 주었다.

물론 돌이켜보면 그 시절만큼 광주 연극이 뜨겁고 치열했던 적이 있었던

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무튼 내 개인이 느꼈던 극심한 갈증은 결국 광주 연극 무대를 떠나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고야 말았다. 결국, 나 역시도 무수하게 대학으로 떠났던 연극계 선배들의 전형들, 그것도 떠나는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을 망설이지 않았던 내가 어김없이 답습하게 된 꼴이었다.

그 무렵, 우연하게 한국연극협회 연극인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고 운명처럼 대구의 몇몇 연극인들과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때 밤을 지새우며 나눴던 연극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목말라했던 연극의 진정성과 치열한 작업정신, 무대에 대한 경허함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공연에 초대받고 한 달 여쯤 뒤, 88고속도로를 넘어 대구를 향했다. 그 날 내 오감(五感)을 자극해 왔던 대구연극의 모습들, 공연이 끝난 뒤 또다시 밤새도록 주고받았던 작품에 대한, 공연에 대한, 소극장

공연을 지속하고 있다.

동행의 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채찍이 되어 주는 동행의 길…….

연극예술이라는 게 결국 인간에 대한 애정, 인간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 상호간의 신뢰를 우선하는 예술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 준 그 동행의 길…….

2018년 9월, 대구에서 광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나는 물었다. 너는 지금 광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는가? 너는 혹시 우리네 삶에 대한, 우리네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애정과 따뜻한 시선을 잃어버린 채 질투와 시기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네 자신의 그릇된 고정관념과 작업 방식, 때를 지니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동행의 길 위에서 연연히 광주연극인의 길을 걷고 있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물었다. 너의 연극, 경허함을 잃어버리는 않았는가? 변명처럼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질문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주 성악가 60명 한 무대에서 하모니 연출 지리산문학상·정남진문학상 중점 다뤄

광주시립오페라단 7일 '솔리스트 앙상블'

광주 성악가 60명이 한 무대에 올라 하모니를 올린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광주 솔리스트 앙상블'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창단 1주년을 맞은 시립오페라단이 창단과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무대에는 광주 오페라를 이끌어 온 박계, 길애령, 고규남, 구제창 교수 등 원로 성악가들과 중견·신진 성악가 등 60명이 참여한다. 2018 광주성악콩쿠르 고향상 수상자 김병강, 김수민씨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정갑균 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의 연출 아래 김택기의 지휘와 문현욱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베르디 오페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이었던가', 생상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



소프라노 길애령



테너 구제창

고',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중 '방금 그 노래 소리' 등 오페라 명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탈리아 가곡 '세레나타', '아침의 노래', '마리우, 사랑의 말을'을 노래하고 칸초네 메들리 '오 나의 태양'과 '돌아오라 소렌토', '강 건너 봄 오듯이', '가고파' 등 친숙한 노래가 무대를 채운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계간 '시산맥' 가을호 발간 '디지털시대' 조명

종합문예지 계간 '시산맥' 가을호(통권 35)가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제13회 지리산문학상, 제3회 정남진문학상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각각의 수상자인 정운천 시인, 최재훈 시인의 수상작품과 대표 작품, 수상소감, 심사평 등이 담겨 있다.

기술문명이 발달하면서 문학에서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인터넷 시와 '디카시'의 확산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시대의 시'를 주제로 전철희 평론가가 글을 썼다.

전 평론가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시는 가벼운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인터넷 SNS를 들여다보면 시집을 일종의 패션 아이템처럼 취급하거나, 기성 시인들의 작품에서 짧은 토막만을 잘라내서 자신의 일상을 멋지게 표현하는 경구로 차용하는 정



도로만 소모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번 호에는 제9회 시산맥작품상 후보작품도 수록돼 있다. 권혁용 시인의 '성찰', 안차에 시인의 '울금', 오봉욱 시인의 '와식', 정선 시인의 '봄을 맞이하는 자세', 김금용 시인의 '축', 김지을 시인의 '난독중' 등 수작들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시산맥이 찾아가는 시인'에서는 구광렬 시인의 '비방록과 마그네슘' 외 4편이 소개됐다. 이영 시인은 작품론 '그림과 그림자의 입체적 존재, 현실과 이상의 중간'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눈으로 읽는 것 같은 명징함, 메시지를 끝까지 견인하는 묵직한 사유의 깊이, 무엇보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자유로움으로 인해 그의 시작은 매우 입체적"이라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주 최초!!! 세계 홈쇼핑 리얼 판매 게임

글로벌 완판왕

팔아야 귀국

VS

9월 COMING SOON

못 팔면 귀국 못하는 거야?



이용진



신동



장도면



이득



지석진



제아



성중



양세한